

바라만



웹진 <해안선> 접속 링크

바다



해안선

해안선

Korea maritime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MAGAZINE

가을빛 머금은 파도처럼
황금빛 머무는 날이기를



2023
Autumn
-
Vol.55

밥도둑 가을 전어

그림 오레오



2023 Autumn
KOMSA MAGAZINE

Vol.55

발행인
김준석 이사장

발행일
2023년 9월 22일(통권 55호, 비매품)

발행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전화
044-330-2380

홈페이지
www.komsa.or.kr

기획·디자인·인쇄
(주)케이에스센세이션

CONTENTS

웃음 바다

- 4 **어촌갈지도**
통영 사랑도&금평(진촌마을) 어촌계
- 12 **바다 옆 예술관**
김혜민 작가
- 16 **여기가 뜨는 이유1**
씨씨윳북 북스토어
- 18 **여기가 뜨는 이유2**
카페&레스토랑, 헤어룸
- 20 **바다 장터**
동문수산시장&제주시민속오일시장
- 24 **수려한 밥상**
제주 중앙식당

안전 바다

- 26 **베테랑을 만나다**
선박탄소중립기술추진단
고동균 선임연구원X
해양안전실 디지털융합팀
최충정 책임연구원
- 30 **어바웃 KOMSA**
친환경 해운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
- 34 **현장에 가다**
고흥지사&고흥운항관리센터
- 40 **KOMSA 이슈1**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준공식
- 44 **KOMSA 이슈2**
해수호 기자단,
KOMSA 현장 속으로!(feat. 극한직업)
- 48 **뉴스**
- 49 **네트워크**
- 50 **이벤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SNS와 함께하세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해양교통안전 확보로 안전한 바다를 만들고, 고객의 행복을 지켜나갑니다. <해안선>에 게재된 내용 일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안선>에 게재된 글과 사진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올가을 어찌면,

더없이 한적하다. 아니 평화롭다. 세상의 근심은 남 일이라는 듯한 이 섬.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다음 계절이 궁금해진다.
아마 사랑에 빠졌다는 증거일까.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사랑蛇梁에

빠질지島



조금은
한가로운 섬을 찾는다면,
사랑도로 향해보는 것도
좋겠다. 사랑도 역시
통영에서 잘 알려진 섬이긴
하지만, 특유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사랑도

통영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 도시다. 특히 품고 있는 섬도 많아 관광객들은 계절의 구애를 받지 않고 통영을 찾는다. 그래서 이미 유명한 섬은 날씨가 좋거나, 성수기에는 여행자들로 붐빈다. 조금은 한가로운 섬을 찾는다면, 사랑도로 향해보는 것도 좋겠다. 사랑도 역시 통영에서 잘 알려진 섬이긴 하지만, 특유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매력적이기 때문이다. 통영 가오치항에서 출발하는 방법과 고성 용암포항에서 출발하는 방법이 있다. 가오치항에서는 40분, 용암포항에서는 20분 정도 소요되니, 자신의 편익에 맞게 선택해서 가면 된다.



편의상 가오치선착장에서 출발하는 방법을 택했다. 뱃길 40분이면 조금 길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쾌적하고 넓은 배에서 잠시 멍을 때리면 금세 도착하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실제로 잠시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도착했다는 안내 방송에 '벌써?'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무작정 사랑대교 걸어보기

금평항에 내려서 본격적인 여행을 하기 전에 사랑대교를 걸었다. 날이 좋은 날에 사랑대교를 걸으며 마을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기억에 남았

다는 어느 여행자의 후기에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 아직은 벌이 뜨거워 걷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조금 더 날씨가 선선해지는 계절에는 언제고 걸어도 좋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사랑대교에서 바라보는 마을 풍경이 꽤 아름답다.

사랑도는 사랑대교를 중심으로 윗섬(상도)과 아랫섬(하도), 수우도 세 개의 섬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제대로 돌아보려면 시간을 길게 두고 여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부분 배로 멀지 않은 탓에 당일치기로 왔다 가곤 하는데, 오래 머무를수록 매력적인 곳이 사랑도라는 마을 주민의 귀뜸이 있기도 했고, 하루 동안 상도만 돌아보기도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참, 상도에는 섬 일주도로가 개설된 이후로 해안 드라이브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으니, 참고할 것.





등산? 캠핑? 아무렴 어때!

사랑대교에서 다시 금평항으로 와서 귀여운 벽화가 있는 담벼락을 따라 걸었다. 아기자기하고 소박한 멋이 있는 이곳은 바로 진촌마을. 식당도 많고, 카페도 심심치 않게 있어 관광객들이 가장 편하게 머물다 가는 마을이라고 한다. 마을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금평항의 경치가 정겹다. 마을 안 최영장 군사당 앞 나무에서 조금 쉬다가 이제 다시 여행에 나설 준비를 해본다. 다음 목적지는 고민할 필요 없이 대항해수욕장이다. 사랑을 찾는 대부분 관광객들의 목적은 트레킹과 캠핑, 차박을 즐기 위해서라는데 이 모든 목적을 충족시켜 주는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이다. 가보면 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이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다.

백사장 모래가 곱고, 물이 맑고 깨끗한 것만으로도 좋는데, 해수욕장 인근에는 고동산 해안둘레길이 있고, 분위기도 한적해 캠핑을 즐기기에 딱이다. 또 이 특유의 한적한 분위기 때문에 낚시를 즐기다 가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조용한 여행을 원한다면, 대항해수욕장이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대항해수욕장에서 여유를 즐기다 보면 먼발치에서 옥녀봉 출렁다리가 보인다. 사실 옥녀봉은 사랑도에서 꼭 가봐야 하는 곳으로도 유명한데, 시간적 여유가 있는 여행자들에게 추천한다. 누군가는 금방 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오르는 코스가 가팔라서 초보자들은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와야 하기 때문. 당일 계획인 탓에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대신했다. 옥녀봉에서 보는 사랑도의 경치는 돈 주고도 못 살 경험이라는데 '다음에는 꼭 와봐야지'라는 다짐과 함께.

대항해수욕장을 찾는 대부분 관광객들의 목적은 트레킹과 캠핑, 차박을 즐기 위해서다. 가보면 왜 사람들이 이곳으로 모이는지 바로 깨달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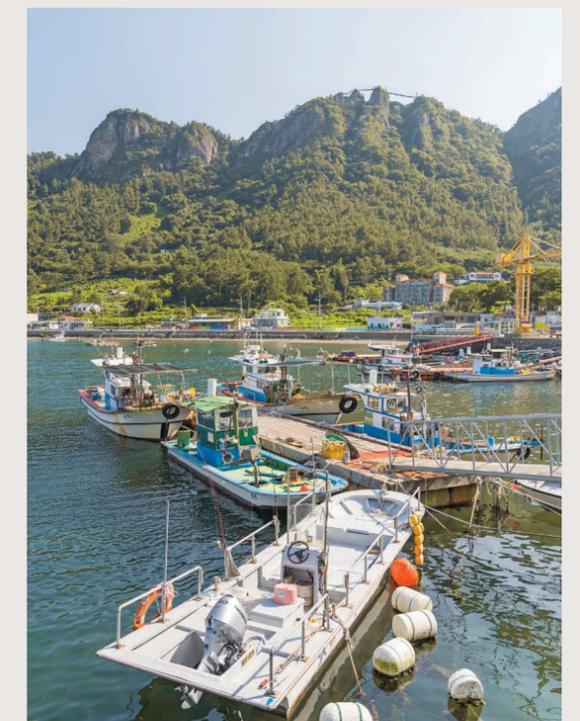
초보자에게 추천하는 사랑도 지리산 등산코스
*4코스(4시간 30분 소요)

금평 옥녀봉 가마봉 불모산 지리산 내지(금복개)



여기도 좋아! 수우도 전망대

수우도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일몰은 기가 막힌다고 소문이 나 있다. 수우도는 사랑도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야 한다. 여행 일정이 길다면, 수우도까지 가서 이국적인 풍경을 꼭 눈에 담을 것.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해골바위가 장관이다.





금평(진촌마을) 어촌계

금평 어촌계는 진촌마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어촌계원의 수는 60여 명. 연령대는 50~70대까지 다양하다. 다른 어촌계에 비해 연령대가 젊은 편이라 금평 어촌계원들은 다방면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이 일대에서는 주로 낙지나 돌문어가 많이 잡히는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돌문어가 거의 없다고.

올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기도 했고, 수온이 많이 오른 게 가장 큰 이유다. 어획량이 많이 줄어 힘들기도 하지만, 금평 어촌계원들은 다양한 시도를 하며 업을 이어가고 있다. 가리비, 굴, 멍게, 홍합 등을 양식하거나 해녀들은 직접 물질을 한다. 특히 사랑도는 미 FDA에서 인정한 청정해역이라 어촌계원들을 비롯한 주민들은 이러한 자부심 때문에 더욱 바다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Interview



금평 어촌계 조현우 계장 & 카페 옥빛바다 이과자 대표



특곡사 월정스님

Q1. 자기소개해 주세요.

사랑도로 귀어난 지 7년 정도 되었습니다. 남편은 금평 어촌계 계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저는 사랑도에서 카페 옥빛바다를 운영하고 있어요. 원래는 남편과 함께 뱃일했는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4년 차에 접어들어요.

Q2. 사랑도 자랑 부탁드립니다.

사랑도는 일단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사람들이 순수해요. 상점들도 바가지요금이 없죠. 건강하다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좋아요. 가장 가볼 만한 곳으로는 옥녀봉을 추천하고 싶어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짙고, 가을에는 단풍이 진짜 예쁘거든요. 계절마다의 풍경이 장관입니다. 대항해수욕장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한적한 분위기가 최고입니다.

Q3. 관광객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혹시 사랑도 여행하다가 쓰레기가 보인다면 '상가번영회 회원의 집' 스티커가 붙은 가게에 들어가 쓰레기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도 상가번영회 회원의 집이라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커피를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Q1. 자기소개해 주세요.

사랑도에서 태어난 사랑도 토박이입니다. 고향이 사랑도 옥동이에요. 사랑도는 예전 이름이 박도였는데, 일제강점기 때 섬과 섬 사이에 물길이 흘러가는 게 뱀 같다고 해서 사랑도라고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도라는 이름보다 사랑도라는 순수 우리말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Q2. 사랑도 자랑 부탁드립니다.

사랑도에 왔으면 옥녀봉을 꼭 올라가야 합니다. 옥녀봉에 얽힌 설화도 알고 가면 더 좋아요. 경치가 정말 멋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옥녀봉이 사랑도에 있다는 건 정말 큰 자랑입니다. 그 옆으로 달바위, 불모산, 깃대봉, 촛대봉 등 아름다운 게 많아요.

Q3. 앞으로 바람이 있다면요?

사랑도를 널리 알리고 싶어요. 명품 사랑도가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옥녀봉, 대항해수욕장, 상도, 하도 등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거든요. 볼락이나 돌문어 같은 먹거리도 다양해요. 관광객들이 사랑도에 더 자주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

어느 날 문득 제주로 그림으로 전하는

위로^慰 로^勞



낮은 돌담과 포근한 나무, 너른 바다가 있는 제주 김녕. 김녕의 어느 한적한 골목에 그림 작업실 헤민장과 초콜릿 가게 구아우쇼콜라가 있다. 동네 분위기와 어우러지면서도 시선이 가는 특별한 양옥. 헤밍 작가는 이곳에서 광활한 자연 앞에 작은 점처럼 부서진 파도가 되었다가 잔잔한 운율이 되기도 하면서 제주의 풍경에 자신을 담아냈다. 자신에게 또 헤민장을 찾는 누군가에게 그림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 박영화 / 사진 정우철

hyeming

마음이 단단해지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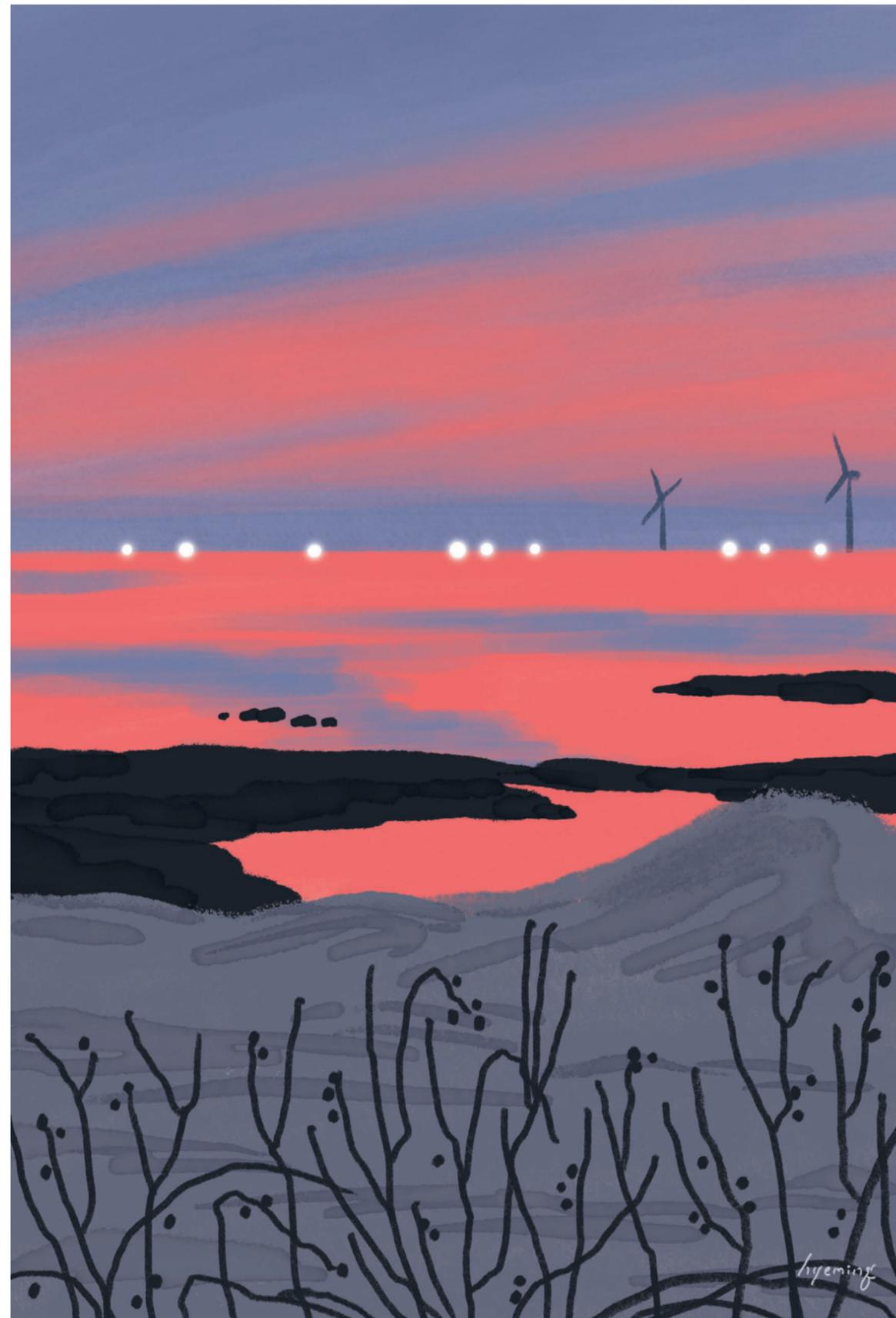
서울 이태원 우사단길. 화려한 서울의 중심지에서 생활하던 헤밍 작가는 어느 날 도시의 속도와 자신의 속도가 맞지 않다고 느낀다. 복잡하고 빠른 세상을 쫓는 게 지칠 때쯤 불현듯 '제주에서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사에 다니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초콜릿을 만드는 쇼콜라티에로 살고 싶어 했고요. 서울에서의 바쁜 삶보다 제주에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여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사실 퇴사를 결심하기 전, 헤밍 작가에게 잊지 못할 만큼 힘든 순간이 있었다. 엄마의 뇌졸중. 매일 힘들었지만, 그렇다고 절망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내기로 한다. 병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엄마의 간병 스토리를 그림으로 그려서 <오늘도 우리는>이라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다.

"아픈 엄마를 보는 것도, 간병하는 것도, 또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힘들었어요. 혼자 멈춰있는 것 같았죠. 긴 투병 생활을 마치고 엄마가 무사히 퇴원해서 기쁘기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구들의 위로 덕분에 조금씩 힘을 낼 수 있었어요."

헤밍 작가는 누군가에게 받은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일까. 그녀의 그림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지럽고 복잡한 마음을 다독여 주는 것만 같다. 이렇게 마음이 단단해진 사람의 그림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김혜민 작가



▲ <코난비치> 2023, 210x297mm, digital drawing
이제는 '코난비치'라는 이름으로 유명해진 행원리 바다. 장마철 제주는 노을이 절정에 이르는데, 바다도 함께 핑크빛으로 물든다.

한적한 마을에 나타난 멋진 가게

헤밍 작가가 처음 정착한 곳은 제주 서귀포였다. 초콜릿이 입소문을 타면서 가게를 찾는 손님이 많아졌고, 부부는 집과 가게만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제주에서 바라던 여유를 느낄 새도 없이. 바다를 보는 일은 겨우 일 년에 세 번 정도였다. 좀 더 자연과 가깝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무렵, 김녕의 풍경과 마주했다. 아름다운 바다와 이국적인 모습의 항구, 조용한 골목까지 갖춘 김녕에서라면 바라던 제주에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문밖을 나서면 바다가 펼쳐져 있고, 바다 위로 떨어지는 노을을 보는 것만으로도 걱정이 사라지고 위로가 되었어요.” 김녕의 어느 한적한 골목에 있는 양옥집을 고쳐, 1층은 초콜릿 가게로, 2층은 헤밍 작가의 그림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갤러리 겸 아트숍으로 꾸몄다. 작가의 이름 ‘헤밍’에 장소 ‘장’을 합쳐 ‘헤민장’이라는 이름도 지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고요한 풍경과 여유로움 앞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면서 ‘모두에게 보내는 동시에 나에게 보내는 위로입니다’라는 문장을 늘 떠올립니다. 헤민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그림 앞에서 마음껏 머무르다 가볍게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잊히지 않는 <위안이 되는 것들>

요즘 헤밍 작가는 전시 준비로 한창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일’에 대한 주제로, 우리는 때로 자신을 너무 미워하고 괴로워하며 살고 있는데, 나의 못난 부분에 지지 말고 함께 잘 살아가자는 이야기를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 준비 중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진행한 많은 전시 중 그녀는 어떤 전시를 가장 특별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을까. “제주로 오기 전 2019년에 진행한 전시 <위안이 되는 것들>이 잊히지 않아요. 힘든 시기에 그린 그림인데 작업 과정과 결과에서 큰 위로를 받았어요. 특히 포스터 그림에서 품에 안긴 강아지는 제가 키우는 반려견이면서 동시에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는 고마운 이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이 그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다시 나아갈 힘을 얻곤 합니다.” 힘든 작업이 될 것이라는 걱정과 달리 며칠 밤을 새우며 준비해도 행복했다는 헤밍 작가. 작품들이 전시장의 조명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작품들을 관객이 바라볼 때의 감동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때로는 제 삶이 고되다고 느낀 적도 있었지만, 나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건 참 근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그림으로 말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헤밍 작가의 남편은 현무암 모양의 달콤한 초콜릿을 준비해 주었다. 남편의 달콤한 외조가 그녀의 그림에서 위로를 만들어 내는 원동력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다시 벽에 걸린 그림을 본다. 따뜻함이 느껴진다. 그녀가 김녕의 바다를 보고 느꼈던 것처럼. 🍫

- 1 — <위안이 되는 것들> 2019, 595x840mm, Acrylic On Canvas
품에 안은 강아지는 반려견이자 작가 곁에서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는 고마운 이들이다.
- 2 — 헤민장에 전시된 작가의 작품들.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위로가 되는 그림들이다.
- 3,4 — 김녕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구아우초콜라와 헤민장
- 5 — <Take-off> 2021, 210x297mm, Digital Drawing
누군가의 출발에 손을 흔들어 주는 모습.



그림을 그리면서 ‘모두에게 보내는 동시에 나에게 보내는 위로입니다’라는 문장을 늘 떠올립니다. 헤민장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그림 앞에서 마음껏 머무르다 가볍게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바코드가 곧 이곳의 Key

씨씨윳북은 여느 서점과는 달리 입장하는 방법부터 다르다. 입구 앞에 마련된 키오스크에서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뒤, 이용 시간을 선택하고 결제 후 나오는 영수증에 있는 바코드를 찍고 입장하면 된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이런 최첨단 시스템에 낯설어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곳은 보통 재방문 고객이 많은 편이라 한 번의 낯설음만 견디면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은 문제없다고. “개방되면 많은 분이 찾을 거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말 책을 읽고자 하는 분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장님의 진심을 엿볼 수 있다.

바다도 보고 책도 보고

씨씨윳북 북스토어

올가을에는 조용하고 소박한 마을 안에 자리를 잡고 책 한 권을 펼쳐볼까. 거기에 잔잔하게 바닷바람까지 불어온다면? 이보다 좋은 호사는 없을 것. 부산 흰여울문화마을 안 씨씨윳북은 이번 가을을 더욱 낭만적으로 만들어 주기에 충분하다.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서점

부산 씨씨윳북(See Sea with BOOK)은 2022년 4월에 오픈한 바다가 보이는 서점이다. 흰여울문화마을 안쪽을 걷다 보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옆에 쌍둥이 빌딩처럼 자리한 여울마크는 사장님이 씨씨윳북과 함께 운영 중인 카페. 하지만 두 건물은 성격이 전혀 다른 독립적인 공간이다. 카페를 찾는다면 여울마크로, 조용히 책에 몰두하고 싶다면 씨씨윳북으로 갈 것.

씨씨윳북이 제안하는 큐레이션

씨씨윳북은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연계해 분기별로 다양한 북 큐레이션을 펼치고 있다. 여행자가 많은 부산의 특성을 고려해 <어느 미래에 당신이 없을 것이라고> 목정원 사진산문, <유어 시티 Your City> 7인 사진집, 디자인 사강의 사진집으로 큐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행자들과 소통하기 가장 좋은 게 사진이라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한국 문화를 알고, 즐길 수 있는 큐레이션을 계획 중이라고.



이용 TIP

- 북스토어 안 미니 냉장고에 구비된 생수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1인 1병)
- 카페 여울마크의 음료를 구매해 북스토어에서 먹을 수 있다.
- 3층에서 한 계단 더 올라가면 루프톱이 있는데, 바다가 한눈에 보인다.

씨씨윳북 북스토어

- 📍 부산 영도구 흰여울길 99
- 📍 인근 공영 주차장 이용
- 🕒 11:00~19:00(일요일 정기휴무)

유리창에 새긴 책 구절

1층은 경제/비즈니스, 2층은 인문/시/에세이, 3층은 여행 서적을 모아 뒀다. 읽고 싶은 책이 있는 층으로 가 마음껏 독서에 빠지면 된다. 어느 전시관에 온 듯한 깔끔한 인테리어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지고, 투명한 유리창에 큐레이션 한 책의 구절을 붙여 놓은 게 인상적이다. 마치 유리창 자체가 책의 한 페이지처럼 보인다. 이 책 느낌이 나는 유리창의 매력은 3층 여행 섹션으로 가면 배가 된다.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바다가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 층마다 구비된 키오스크를 이용해 책도 구매할 수 있다.



카산으로 이끌었는지 모른다.

카산으로 가는 내내 버스 창밖으로는 이루어진 단순하고 건조한 풍경이 뒤따라 찰리 헤이든과 팻 메스나가 연주한 'Beyond' 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목마른 어린왕자가 나타나 '사막이 아름다운 건' 하고 속삭일 것만 같다.

산, 페르시아 대상인들의 옛집으로 통하는 길다 하나 돌씩 별이 떠오르면 세헤라자드가 들게 되는 건 아닐까? 밤은 어느 도시에서



©해어름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어름

서해대교를 배경으로 해, 달, 별빛, 밀물과 썰물에 따라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카페&레스토랑이자 복합문화공간, 해어름. 매산해변길을 따라 달리다 보면 음성포구 끝에 해어름이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독특한 곳에 있어 어느 곳에서나 일렁이는 바다가 보인다. 해어름은 베이커리&카페동, 레스토랑동, 이렇게 두 개의 건물로 나누어져 있다. 두 곳 모두 전면이 통유리창으로 되어 서해를 한눈에 담을 수 있어 유명해졌다.

해어름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매산해변길 144
- 베이커리 카페 10:00~20:30
- 레스토랑 카페 11:00~21:30
- 연중무휴(브레이크 타임 PM 15:00~16:30)

해어름



이 좋은 풍경 기분 좋은 달달함

카페&레스토랑, 해어름

탁 트인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해어름.

신선한 음식, 음료와 함께 바다와 하늘, 자연과 건축이 어우러져 사계절, 낮과 밤,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힐링 플레이스다.

글 박영화 / 사진 고인순



해질녘에 더 맛있는 곳

해어름은 현대적인 콘크리트 건축물과 아름다운 조경의 조화에 도착하는 순간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다.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건축물은 오랫동안 바닷물로 탁마된 자연석을 닦았고, 곧 출항할 배를 형상화했다. 그렇기에 해어름에서의 식사는 마치 멋진 크루즈에서 바다를 보며 식사를 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다. 해어름이 핫해진 이유는 일출과 석양을 바다 너머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해어름'이라는 이름도 순우리말로 '해질녘'을 뜻하는 충청도 방언 해거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 2014년에 오픈한 해어름은 멋진 조경으로도 유명한데, 10여 년간 가꾼 500여 종의 수목과 야생화들 덕분에 사계절 어느 때 방문해도 좋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터지는 수산물 이슈.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간다.
 하지만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 어민들은 희망을 품고 시장의 문을 연다.
 함께 노력한다면 이 힘든 시기가 계속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에.
 착잡한 상황 속에서도 활기를 잃지 않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제주 동문수산물시장 그리고 제주시민속오일시장으로 갔다.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Keep going!



동문수산물시장과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은?

제주 최대 규모 수산물 전문시장인 동문수산물시장은 1970년대에 개설되어 지금까지 그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신선한 제주 수산물은 물론이거니와 상인들과 흥정하는 재미, 후한 인심을 기대해도 좋다. 좀 더 오래된 느낌의 시장을 찾는다면,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을 추천한다. 27일마다 정기적으로 장이 서고 할머니들을 위한 할망장터가 열리는 등 제주 시장의 옛 모습을 느낄 수 있다.

📍 동문수산물시장
 제주 제주시 이도1동 1349-60

📍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제주 제주시 오일장서길 26



우리는 시장으로 간다





넘실대는 파도만큼이나 시장 상인들의 하루는 꽤 역동적이다.
손님이 시장에 발길을 하고, 장바구니에 싱싱한 수산물을 담아가기까지,
그 사이 동안 상인들은 누구보다도 바쁜 시간을 산다.
그들이 보낸 보이지 않는 시간이, 지금 우리가 시장을 찾는 이유다.



싱싱한 수산물에 친절함은 덤!

바다까지 와서 싱싱한 수산물을 맛보지 않는다면, 그건 바다와 상인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식당에서 먹는 것도 좋지만, 시장에서 직접 골라 맛보는 수산물은 오래 기억이 남는 법. 동문수산시장은 제주를 대표하는 은갈치와 전복, 옥돔 등 제주 앞바다에서 잡아 당일애 들어온 신선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찾았던 때는 한여름이라 그 시기 제철인 한치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는데, 제철 한치를 맛보고자 싱싱한 상태로 포장해 가는 손님들이 많았다. 서울에서 왔다는 한 소비자는 “제주도 올 때마다 동문수산시장을 자주 찾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신선도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아요. 수산물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라며 시장을 찾은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시장 내 자리한 우리수산은 많은 손님이 찾는 가게인데, 1층에서 수산물을 고르고 계산하면 2층에서 먹고 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뒀다. 우리수산에서 일하고 있는 한 상인은 환한 미소로 손님들 맞이하며 말했다. “예전에 비하면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안타깝기도 하지만, 더 친절하게 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동문수산시장에는 우리수산 말고도 시장에서 직접 고른 수산물을 손질해 식당에서 요리로 즐길 수 있는 전문식당이 많으니 취향껏 이용하면 된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맛보고

동문수산시장의 또 다른 묘미는 바로 수산물로 만든 퓨전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수산시장 내 동태마을 간판 인근에 준비한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종류도 다양하다. 흑돼지 전복 김치말이 삼겹살부터 랍스터 마농구이, 랍스터 마늘버터치즈구이, 대게그라탱, 계떡지밥 등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퓨전 음식이다. 휴가철에는 줄을 서서 먹을 정도라고 하니, 한 번쯤은 기다려 볼 만하지 않은가. 동문수산시장이 조금 세련된 느낌이라면, 제주시민속오일시장은 그야말로 예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실제로 동문수산시장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여기는 제주 토박이들이 즐겨 찾는다고. 그만큼 느낌이 아예 다르다. 각 섹션이 너무나도 재밌지만, 수산물장은 특히 활력이 넘친다. 난전에 놓인 싱싱한 옥돔과 은갈치, 문어, 고등어 등 그 시기 제주 바다에서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가능할 수 있다. 싱싱한 생선을 현지에서 구매하고 택배로 받아보는 것도 가능하다.





제주스럽게 한 끼

중앙식당

흰쌀밥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 거기에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과 반찬 몇 가지. 특별할 게 없는데도 어쩐지 자꾸만 손이 간다. 아마 이 밥상을 차려내기까지 수고했을 밥상 넘어 사람들의 정성과 귀한 식재료의 가치가 담겨서겠지. 제주 안덕면에서 만난 밥상이 그랬다.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산방산 아래 터줏대감



바람, 돌, 여자가 많다고 해서 예로부터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불렸다.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 여행객들이 많이 찾다 보니 사람도 많고, 먹거리도 많아졌다. 그렇다면, 넘쳐나는 제주 맛집 속에서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야 할까.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의 상징과도 같은 '산방산' 아래 자리한 세월 깃든 식당이 있어 소개한다. 바로 중앙식당이다.
언젠간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흔한 이름과 눈에 띄지 않는 외관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얼마나 맛있으려나?'. 하지만, 맛을 보고 난 후에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니 걱정하지 마시길.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민들과 여행객들의 배를 따뜻하게 해준 걸 보면, 맛은 보장된다는 소리니까. 특히 오전 6시부터 문을 열어 든든히 아침 식사를 하고 여행을 시작하기에 제격이다.

성계보말국 맛이 좋수다



성계국, 갈치국, 갈치구이, 갈치조림, 옥돔구이 등 메뉴는 다양하다. 그래도 이 집에 왔다면, 성계보말국을 꼭 맛봐야 한다. '보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고등인데, 제주도에서는 고동류를 통칭해서 '보말'이라고 부른다. 간염, 지방간, 간경화 등 간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고 숙취 해소와 신경통, 시력 보호에도 도움을 주는 영양 덩어리 해산물이다. 거기에 바다에서 나는 생물 중 영양가가 가장 뛰어나다고 알려진 성계를 넣고 미역국을 끓여 냈으니, 보약이 따로 없는 셈. 그러니 중앙식당을 찾았다면, 성계보말국은 반드시 시킬 것. 실제로 여기서 성계보말국을 맛보고 간 사람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해 택배로 주문해서 먹을 정도라고 한다. 그 덕분에 사장님은 전국 각지의 주소를 꿰고 있고, 그 옛날 개그 프로그램의 수다맨처럼 술술 읊는다. 성계보말국 하나로는 아쉽다면, 두툼한 제주산 갈치구이를 더해보자. 더욱 풍성한 밥상이 될 테니. 🌐

중앙식당

📍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로 108
☎ 064-794-9167



해양안전실 디지털융합팀 최충정 책임연구원

‘공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공감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지
업무적으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선안전설비를
개발한다면 그 전에
그 설비를 이용할 사람들과
관계기관 직원의 공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바라는

해양교통의 미래

‘내가 이 분야에
최고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합니다.
연구를 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을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
‘어렵지 않을까?’가 아닌
‘내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
자신감도 생기고
일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선박탄소중립기술추진단 고동균 선임연구원



수많은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바다. 우리의 삶은 그 가능성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기에 우리는 선박의 안전에 관한 기술 개발과 선박의 제조에서부터 운항과정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발굴하여 연구 개발을 해야 한다.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말이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사고예방기술, 친환경선박기술, 해양환경정책사업 등 안전한 선박 운항에 필요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며 해양교통의 더 나은 미래를 이끄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두 연구원을 만났다.
글 박영화 / 사진 고인순

Q. KOMSA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고동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일하게 된 곳이 선박 엔진 제조업체였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검사원과 함께 일했는데, 대화를 하면서 선박기술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좋은 기회가 생겨서 2020년 6월에 입사했습니다.

최충정 저도 경력직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입사했습니다. 해운선사에서 일하다가 2015년 3월에 입사했는데, 선박 관련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 이 분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양교통에 관한 기술이나 정책, 연구에 대해 알아가면서 전문성을 키우고 싶었습니다.

Q. KOMSA 연구원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최충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는 교통정책실, 해양안전실, 해양환경실,

안전연구실 이렇게 네 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TF팀인 선박탄소중립기술추진단이 있죠. '교통정책실'은 해양교통안전관련 법의 제·개정 지원, 교통체계 개선에 관한 업무, 국제기구 관련 회의 대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양안전실'은 선박을 무상으로 점검한다거나 선박안전에 대한 체형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양안전실 디지털융합팀에 소속되어 있는데요. 해양교통안전을 위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기반을 구축해서 해양교통안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실'은 연안해운 온실가스 미세먼지 관리 등 해양환경정책사업 수행을 통해 친환경 기술 혁신을 주도하는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연구실'은 연승어선 표준선 연구개발, 기술기준 연구 및 개발, 조종성능 해석 및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동균 저는 선박탄소중립기술추진단 소속 연구원인데요.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TF팀입니다. 최근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CO₂, CH₄ 등) 감축 및 대기오염물질(NO_x, PM, SO_x 등) 저감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친환경선박 신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지만, 공단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친환경선박 신기술의 조기 보급·상용화를 위해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검사방법·형식승인 기준 마련' 등의 제도화 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Q. 요즘 집중하고 계신 업무는 무엇인가요?

최충정 최근 저는 해양교통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플랫폼에 연계된 데이터를 가공·분석하여 해양교통안전을 위한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전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80% 이상이 어선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센서 기반의 전복사고 경보장치를 시범개발하여 실증연구를 하고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동균 최근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해운분야에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중에서도 '선박용 바이오연료'와 관련된 연구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연료의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전 과정 평가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입증된 선박용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는 수많은 연구를 바탕으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5년 국제해사기구 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



베테랑을

66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닌 국제적인 표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교통안전이라는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99

Q. 그동안의 활약상을 소개해 주세요.

고동균 공단에 입사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설비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 잠정기술 기준(이하 기준) 개발'에 참여하여 친환경선박 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2021년 8월, 해양수산부가 배포한 기준에 따라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의 성능확인을 국내 최초로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양수산분야 우수 R&D로 선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최충정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국제해사기구(IMO) 회의대응 전문기관으로서 국제해사기구 여러 회의의 참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해사기구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 후 바로 국제회의 대응 업무를 시작하여 7년 이상 담당했었는데요. 국제해사기구 해상교통간소화위원회(FAL), 협약이행 전문위원회의 우리나라 대표단

간사 역할,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회의대응, 국제표준화 관련 연구과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공을 인정받아 2018년에는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Q.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최충정 최근 소형어선의 전복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센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내 위험경보를 어떻게 줄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는데, 바다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고민을 하는 것 자체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 반영되어 정책이나 기술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고동균 연구 과제가 끝나면 평가를 받거든요. 거기서 '우수' 등급을 받았을 때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연구 업무는 당장의 성과를 창출하기 어렵고, 짧게는 1~3년, 길게는 5~10년이 소요되어 결과가 나타납니다. 긴 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

선박용 PM-NOx 배출저감설비 해상 실증 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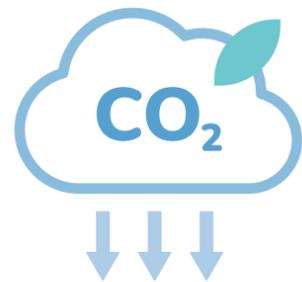


무엇보다

친환경 해운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

지난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 국제해사기구 런던 본부에서 5일간 개최된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2050년경까지 넷제로(Net-Zero)를 목표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전략이 채택되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도전적인 목표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반대로 명확하지 않은 표현 때문에 국제해운 탈탄소 전환이 지연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새롭게 발표한 IMO의 온실가스 감축 전략 의미와 공단의 노력을 알아보고자 한다.

글: 자료 해양환경실 최유광 주임검사원



2040년까지 탄소집약도
40% 감축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전략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는 국제해운의 안전, 해양 환경보호, 해상교통 촉진 등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문제를 다루는 유엔 산하 전문 기구이다.

이 중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Marine Environment Protection Committee)는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및 규제를 다루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은 최근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이다. 2018년 IMO가 2050년까지 2008년 대비 50%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마련한 초기전략(Initial IMO GHG strategy) 이후, 초기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규제 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21년 7월 현존선 에너지효율 규제인 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와 선박온실가스집약도지수(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를 채택하였고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초기전략에는 2023년까지 전략의 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위원회는 2022년부터 초기전략 개정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특히 목표 상향 및 정량적 목표는 국가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유럽, 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2050년까지 가능한 한 빨리 국제해운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중국, 브라질 등의 개도국들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제로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높은 목표로 인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023 IMO 온실가스 감축전략

비전	IMO는 가능한 빨리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을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지속 헌신한다.
의욕수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조선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선박의 탄소집약도 저감 2 2040년까지 국제해운 탄소집약도 40% 감축 3 2030년까지 국제해운 에너지 비중의 5~10%를 무배출(또는 무배출에 가까운) 연료·기술 도입 4 2050년경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 달성
중간 점검지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연간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20% (30% 노력) 감축 2 2030년까지 2008년 대비 연간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 최소 70% (80% 노력) 감축
중기조치	목표기반 연료 표준제(기술적 요소)와 온실가스 가격제(경제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중기조치 개발
향후 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5년 봄) 중기조치 승인 2 (2025년 가을) 중기조치 채택 3 (2027년) 중기조치 발효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2023 전략에서 IMO의 최종 목표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O는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완화 노력에 동참하고자 넷제로 목표를 담은 '2023 IMO 온실가스 감축전략(이하 2023 전략)' 채택을 결정하였다.

2023 전략에서 IMO의 최종 목표는 2050년경까지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배출량 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곧 지금까지 선박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킴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했던 기존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메탄올, 암모니아와 같은 친환경 연료의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 규제 방향

2023 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기술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함께 고려한 중기조치를 2025년 가을까지 채택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어떤 조치를 도입할지 계속 논의 중인 하나 기술적 요소는 국제해운의 저유황유 규제처럼 기준치 미달 선박에 조치하는 방식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적 요소는 기술적 요소를 미달성한 선박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모든 선박에 탄소세와 같은 톤당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이 어떠한 형식으로도 IMO 차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규제가 개발될 것이라는 정도는 예상해볼 수 있다.

경제적 요소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개도국 지원, 친환경 기술 R&D, 친환경 연료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해운사는 친환경선박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획득함으로써 비싼 친환경 연료 구매 비용을 일부 상쇄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해사기구 본부 전경



2021년~현재
친환경선박 인증

약 **40** 건

공단의 노력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적 동향을 모든 산업계에 알릴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공단은 매년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 동향을 알리기 위해 관련 산업계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2023년 7월 부산에서 개최하였으며, 5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설명회에서는 제80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 결과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 관련 미국과 유럽의 지역규제 현황 및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정책 소개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이해관계자들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공단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친환경선박 인증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등의 배출 저감 기술을 적용한 선박의 환경친화도를 평가하여 인증등급을 부여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정부는 친환경 내·외항선 건조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단은 인증업무를 시작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약 40건의 인증을 진행하였으며, 인증을 받은 선박들 가운데 많은 선박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건조 중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관련 설명회를 통해 인증제도를 홍보하고, 친환경선박 인증제를 고도화하여 대한민국의 친환경 해운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이러한 정책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을 장려하더라도 기술의 성숙도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친환경선박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공단은 친환경 신기술 기자재를 개발하였으나, 선주사가 요구하는 해상 실증 이력을 갖추지 못한 기

앞으로도 공단은 관련 설명회를 통해 인증제도를 홍보하고, 친환경선박 인증제를 고도화하여 대한민국의 친환경 해운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업을 대상으로 퇴역 예정 관공선을 활용하여 해상 실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바이오연료 블랜딩 시스템 등 총 6개의 기술에 대한 해상 실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사업」 연구를 통해 '한국형 친환경선박(그린십-K) 해상 실증 플랫폼'을 개발하여 더 많은 기업에 해상 실증을 지원하고 실증 결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련 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

자동차의 경우 2009년 EU에서 신규 등록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5년까지 130g/km로 낮추도록 요구하는 규제의 도입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2035년부터 신규 등록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완전히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퇴출을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유럽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은 2033년부터 유럽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글로벌 주요 자동차 업계의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1년 IMO도 2013년 1월 1일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선박에 대하여 선종별 기준선 대비 감축률을 적용하여 설계에너지효율을 개선하는 조치인 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의 도입을 시작으로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자동차 규제처럼 선박도 점차 친환경선박으로의 전환이 유일한 대안이 될 것이다. 새로운 규제는 누군가에게는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전기차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테슬라는 전기차만으로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1위 기업인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추월했다. 이는 전기차 생산에 대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시대에 가장 적절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해운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테슬라처럼 변화의 기회를 통해 새롭게 성장하는 국가 또는 기업에게 그 자리를 내어줘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정부와 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여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바이오연료 블랜딩 시스템 해상 실증



2023 해양환경 정책설명회

고흥에서 보내는 흥미진진한 나날들

고흥지사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조용하고 어심(魚心) 깊은 마을이다. 고흥지사&고흥운항관리센터는 이 작은 마을 안에 있다. 전국 각지의 KOMSA 지사 및 운항관리센터에서는 유일하게 읍 단위에 속해 있는 것. 너무 먼 거리로 인해 처음 발령받을 때는 기피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내다 보면 정이 넘치는 고흥 어민들과 직원들에게 동화되어 업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오죽하면 직원들 사이에서 “올 때 슬퍼서 울고, 갈 때 슬퍼서 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먼 곳에서 누구보다도 끈끈하게 인화(人和)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그들과 함께했다.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고흥운항
관리센터



고흥지사의 식구들은 총 10명. 서무천 지사장을 필두로 검사 직, 실무직 직원들이 어우러져 고흥지사를 이끌고 있다. “고흥지사는 현재 어선 1,678척, 일반선 40척의 물량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주로 소형 FRP선 건조 검사 및 정기 검사를 진행하죠.” 소수의 인원으로 우리나라 소형 선박의 25%를 검사하고 있으니 하루 일과가 정신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은 누구보다도 서로를 위하여 끈끈한 동료애를 발휘하고 있다. 직원 대부분이 가족과 떨어져 지내고 있기에 즐거울 때는 술잔을 기울이기도 하고, 힘들 때는 서로 다독이며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는 것이다. 떨어져 있는 진짜 가족이 생각날 틈이 없도록.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고흥지사 하면 ‘가족’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늘 웃으며, 진심으로 고객과 선주님들을 대하고 원팀을 유지해 주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럼만 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선박검사원은 현장에서 일하는 직군이라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지남여름이 그랬다. 선박 위에서 혹은 안에서 더위와 싸워야 했기 때문. “선박 검사를 할 때는 더위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름에 폭염으로 힘들었습니다. 후배들도 마찬가지고요. 갈수록 기후변화가 심하다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힘들게 일하는 선박검사원들을 위한 폭염 혹은 혹한기 대비 가이드라인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이들이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빛을 발휘해서일까. 직원 모두가 환하게 미소 짓는 일이 생겼다. 지어진 지 40여 년이 된 사무실과 숙소를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며 고흥지사 직원들의 정주 여건이 좋아진 것이다.

“지금이야 인천, 목포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들어섰지만, 고흥지사는 두 센터가 들어서기 훨씬 오래전에 지어진 공단 지사 중 유일한 단독청사였습니다. 오래된 만큼 시설이 많이 낡아 있었어요. 이사장님께서 지사 순시를 하시더니 결정을 해주셨어요. 올해 예산을 지원받아 리모델링을 마쳤습니다. 문서고 역시 바꿨고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흥지사 직원들은 이제 좋아진 여건 속에서, 가족 같은 직원들과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일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같이’의 ‘가치’를 아로새기며.

부지런함과 책임감을 겸비한 고흥운항관리센터

배를 타고 떠나기 좋은 맑은 날. 녹동신항연안여객선터미널 2층에는 분주함이 감돌았다. 이런 날이면, 승선객이 많아 고흥운항관리센터 직원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저희는 보통 새벽 5시부터 출근합니다. 5시 50분부터 출항이 시작되거든요. 5시부터 오전 9시까지 제일 바쁜 시간이에요.” 남들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각에 하루를 시작하는 만큼 이들이 업무에 임하는 각오 또한 남다르다. 자신들이 부지런하게, 꼼꼼하게 운항관리를 해야만 승선객들이 안전하게 여행 길에 오를 수 있다는 걸 알기에.

“우두항에 있는 파견지까지 관리하느라 직원들끼리 같이 일하는 시간이 짧기도 해요. 하지만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바 업무를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든든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남다른 책임감 덕분일까. 고흥운항관리센터는 지난해



고객만족도에서 전국 운항관리센터 중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다.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운항관리자들의 노력을 고객들 역시 느낀 것이다.

언제나 소통! 잃지 않는 초심!

고흥운항관리센터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상 악화가 예상되면, 기상청 예보 등을 분석한 자료를 근거로 선사, 선장 등 운항 결정 책임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이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고흥운항관리센터에서 운영하는 네이버밴드에 알려, 바다 여행을 돕고 있다. “예전에는 여객선 운항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어서 여객선 통제 시 여객터미널까지 와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도 승선객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은 ‘제 몫’을 다하는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들이 보든, 안보든 간에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사람들, 고흥운항관리센터 직원들처럼 말이다. 지금의 마음가짐대로 초심 잃지 말고 운항관리를 이어 나가길. 그리하여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결실을 맺길. 앞으로도 더 기대되는 고흥운항관리센터의 하루하루를 응원한다.

고흥을 지키는 KOMSA인을 위한 Special Award

고흥지사&고흥운항관리센터 직원 자체 설문 등을 통해 고흥에서 활약하고 있는 KOMSA인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다음이 여기 주목~!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 먹, 잘, 알 직원은?

GIFT 열심히 일한 당신, 당 충전하세요! 주전부리 세트



다양한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업무 경력과 함께 맛 경력 역시 쌓였다고. 지역별 맛집이나 명소를 꿰뚫고 있다.



고흥지사 현지인. SNS에 능숙해 맛집을 검색하는 것도 잘한다. 고흥지사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SNS의 달인이다.

분위기 메이커 직원은 누구?

GIFT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 고마워요~ 술잔&안주 세트



부서 회식을 할 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에너지도 넘쳐서 업무도, 분위기도 모두 활기차게 하는 에너지맨. 고흥운항관리센터 내 스타다.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매력기 있다. 또한 최신 유행과 트렌드에 능해 고흥지사 식구들에게 알려주기도 한다고. 회사자리에서는 말해 무엇하리. 특유의 유머러스 함으로 분위기를 주도한다.



선박 건조 현장에 나왔습니다!
격벽 골격에 맞는 재료가 쓰였는지
확인해야 해요~!

두께나 하우스 사이즈 또는
규정을 확인하죠.

안전한 바닷길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고흥의 현장을 가다!

고
흥
지
사



초음파 측정기를 이용해
두께를 측정 중~!

이렇게 하면 마모가
얼마나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배관 전기선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진수 전
배관을 확인합니다.



선박검사를 마치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오늘도 검사하느라 고생하신
선박검사원님들께 박수!!!

고
흥
운
항
관
리
센
터



3등기관사님과 운항 점검을 실시합니다!
371사님 오늘도 안전 향에 부탁드립니다~!



엔진점검 중!
연료가 새는 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해요.



선미데크 체크도 맞지 않아요!
줄이 마모되지 않았는지, 확인 또 확인~!



선장님과 함께
최종 점검 중!
오늘도 무탈한
항해 하세요~!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준공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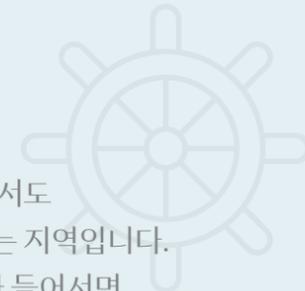
스마트한 선박검사, 안전한 바다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

첨단 검사장비를 활용해 선박검사 및 점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렇다. 중부권 유일의 중소선박 종합 안전관리 시설,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라면 이 모든 게 가능하다.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2023년 8월 25일 (토) 10:30



“인천은 중부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가장 많은 수상레저 인구가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들어서면 기관 손상 사고가 잦은 수상레저기구 등 중소선박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인천에도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인천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들어섰다. 정식 명칭은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이로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국내 유일무이한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두 곳을 운영하게 되었다. 지난 6월 운영을 시작한 목포에 이어 인천 역시 해양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열게 되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 특히 인천지사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집행하는 전국 선박검사 물량의 14% 수준을 맡고 있다.

“인천은 중부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가장 많은 수상레저 인구가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들어서면 기관 손상 사고가 잦은 수상레저기구 등 중소선박의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준공을 축하합니다!



21년 12월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착공
22년 1월 16일	자체비 인상 등 9.5억원 추가 반영 ▶ 총사업비 110.58억원
22년 12월	자체비 인상 등 9.5억원 추가 반영 ▶ 총사업비 110.58억원
23년 5월 11일	센터 사용승인(준공) 완료(인천광역시 중구청)
23년 6월 14일	센터 비관리청 힘있게발사업 준공 완료(인천지방해양수산청)

2023년 8월 25일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준공식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완공되기까지 묵묵히 구슬땀을 흘려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업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더 안전한 바다를, 일반 국민에게는 친근하고 행복한 바다를 선사할 것입니다.”



인천권 안전한 바닷길을 책임집니다

지난 8월 25일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준공식이 진행되었다. 준공식이 시작되기 전에는 맥키스 컴퍼니 오페라단의 공연도 이어졌다. 공연이 이어지는 동안 하나둘씩 식장에 모여든 해양수산업 관련 종사자들과 어업인들. 이들은 공연을 즐기며 설레는 마음으로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센터 홍보영상이 장내에 상영되고, 본격적인 준공식이 시작되었다. 홍종욱 해수부 해사안전국장,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등 주요 내외빈 소개 후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스마트 선박안전 T/F 김몽주 팀장의 경과보고가 이어졌다. 경과보고에서는 그간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준공하기 위해 달려온 공단 임직원과 협력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어렵게나마 느낄 수 있었다. 곧이어 유공자 포상 및 감사패 전달의 시간. 공단은 준공까지 힘써 준 사람들을 위해 고마운 마음을 전달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김준석 이사장은 자리를 빛내준 내빈들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공단은 어업인과 수상레저 인구 등 정책 고객에 거점형 선박 안전관리 시설을 통해 더 안전한 바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선박검사·점검 과정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온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업 관련 종사자들과 어업인 등 모두의 숙원이었던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목포, 인천을 시작으로 남해, 동해 권역에도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바다라면 어디에서든지 스마트한 선박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다. 목포, 인천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의 힘찬 출발이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실천으로 보여준 KOMSA의 앞으로가 기대되는 바다. 🌊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에서는



유체성능분석 OK!

수상레저기구 등 중소선박의 엔진에서 윤활유를 추출해 엔진 내구성과 안전성 등을 검사하는 것.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해양 사고에서 기관 손상 사고는 27%였는데, 주로 어선과 수상레저기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해양 안전 체험 교육 OK!

선박 종사자와 수상레저 관련 인구 등 일반인을 위한 해양 안전 체험 교육도 진행된다. 선박 모의조종 시뮬레이터, 가상현실 체험, 해양 안전 교육 등이 바로 그것.



첨단 선박검사 장비 OK!

검사가 시급하거나 수시 검사가 필요한 원거리 선박설비에 대해서 방문과 센터를 통한 원격검사가 병행된다. 단, 원격검사는 선박용 설비(디젤기관)에 대해 예비 검사 검정 등부터 실시할 계획.

*그밖에 중소형 선박검사(원격검사, 정밀검사), 선박 안전 점검,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활용 친환경 소형 어선 건조 기술 교육 제공



해수호 기자단, KOMSA 현장 속으로!

(feat. 극한직업)

기자단과 함께



QR코드를 스캔하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KOMSA 제2기 해수호 기자단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발대식에서 세종 본사 견학을 마친 그들이 인천에 뒀다.
현장에서 좀 더 가까이 그리고 자세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다.
인천지사와 인천운항관리센터 직원들의 땀방울을 곁에서 느낄 수 있었던 의미 깊은 시간 속으로.
글 최선주 / 사진 정우철 / 영상 최의인



KOMSA
현장 속으로 Go! Go!





KOMSA 직원분들에게 박수를!

이제 인천지사와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로 발걸음을 옮긴 기자단. 백명기 지사장은 기자단을 반갑게 맞이하며 대강당에서 인천지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자단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인천지사는 검사직, 운항직, 연구직 등 다양한 직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영상을 한 번 볼까요?”

영상으로 인천지사와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알아봤다면, 이제 직접 눈으로 볼 차례. 기자단은 바로 옆에 있는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로 가서 스마트한 선박검사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여기서 선박을 검사할 수 있는 게 믿기지 않네요”라는 기자단의 말에 백명기 지사장은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선박검사는 물론이고 친환경선박 등의 시설 검사도 가능해요.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가 들어서면서 우리 KOMSA 선박검사원들이 원격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죠” 1층을 돌아본 기자단들은 2층 해양안전문화체험관에서 간접적으로 체험을 했다.

마지막으로 소래포구어촌계로 가서 생생한 선박검사 현장을 살폈다. 어민들의 생업과 이어지는 선박들이기에 인천지사 선박검사원은 누구보다도 안전하고, 꼼꼼하게 선박검사를 진행했다. 이 모습에 기자단은 “이렇게 잠깐 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라며 박수를 보냈다.

생생하게 느껴본 KOMSA 직원들의 하루. 해수호 기자단은 하나같이 이렇게 입을 모았다.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 선박검사원, 운항관리자 분들의 노고를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다 최전선에서 안전을 책임져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KOMSA REPORTER



특명, 인천으로 가서 KOMSA를 알려라!

지난 8월 30일, 발대식 이후 오랜만에 기자단 전체가 광명역에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인천지사와 인천운항관리센터 그리고 인천권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탐방하며 KOMSA인과 호흡하기 위해서다.

오전 11시 30분, 인천운항관리센터에 도착한 이들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12시 30분에 출항할 코리아프린세스호에 탑승해 운항관리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견학하는 시간을 가졌다.

“기관실은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모두들 다치지 않게 주의해 주세요.” 윤석현 운항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기자단은 조심조심 움직였다. 좁은 통로를 지나 기관실 안에 들어선 그들. 시끄러운 기계음 때문에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다소 당황한 눈치다. “정말 시끄럽죠? 시끄럽지만 선박 모든 곳의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운항관리자의 말에 기자단들은 “우와, 매일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라며 놀라워했다. 그리고 조타실로 들어가 선박교신을 하는 선장님과 인사를 나눴다. “모든 배는 출항 전에 운항관리센터 내 운항관리자와 교신을 합니다. 다 안전하게 출항하기 위해서죠” 힘든 기색 없이 넓은 선박을 점검하는 운항관리자들의 노고에 기자단들은 엄지를 치켜세웠다.

KOMSA 직원분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에 저희가 안전한 바다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계절을 막론하고 현장에서 땀 흘려 주시는 KOMSA 직원분들 감사합니다.

-해수호 기자단 2기 일동-



NEWS

Autum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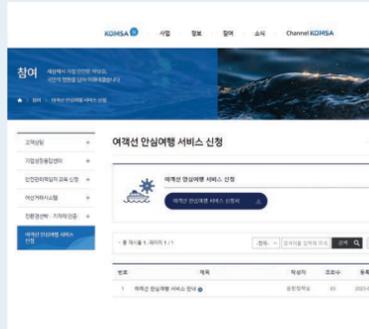


1

여객선 운항 일일 예보 서비스 시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월 3일부터 전국 54개 주요 항로를 대상으로 여객선 운항 여부를 하루 전날 알 수 있는 '내일의 여객선 운항 예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일의 여객선 운항 예보 서비스'는 공단 운항관리자가 날씨와 바다 정보, 여객선 출항통제 기준과 선박 정비 일정 등 운항 상황 데이터를 분석·가공해, 다음날의 여객선 운항 여부를 예보하는 방식이다. 공단이 지난 4월부터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통해, 예측 데이터 약 3만 6천 건과 실제 운항 상황을 비교한 결과 평균적인 예보 일치율은 4~5월 93.9%, 6월 98.8%로 나타났다. 예보 대상은 해당 항로의 특성과 선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일 1~2회 운항하는 선박과 원거리 항로 위주로 54개 항로가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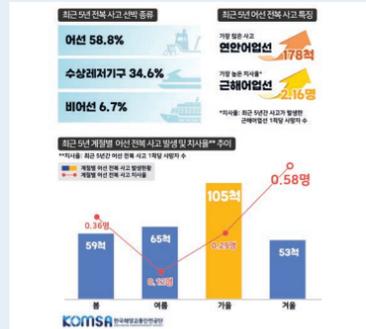


2

“배타고 섬여행 가자!” 여객선 안심여행 서비스 시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월 16일부터 초·중·고교 수학여행단 등 단체 승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안전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객선 안심여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객선을 이용할 단체 여행객은 '여객선 안심여행 서비스'를 통해, 여행일 20일 전까지 승선할 여객선의 최근 3년간 인명 사고 현황, 선박검사증서 사본 등 안전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여행일 10일 전까지 공단에서 제공하는 '여객선 안전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단은 여객선사와 함께 여객선 출항 전 집중 합동 점검, 여객선 종사자 면담, 여객선 운항 전 과정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서비스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3

전북 사고 '가을철' 최다 발생, 절반 이상 어선, 5년간 인명피해 109명

지난 9월 7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발생한 전복 사고 선박 척 수는 총 480척으로 10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해양 사고 건수 총 1만 5,997척에서 전복 사고 비율은 약 3%에 불과하나, 사망·실종자는 전체의 20%에 달했다. 계절별로는 성어기를 맞아 어선의 조업 활동이 늘어나는 가을(9~11월)에 가장 빈번히 발생했으나, 사고 치사율은 해수온이 낮아지는 겨울(12~2월)이 가을보다 약 1.9배 높았다.

KOMSA NETWORK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바다를 즐기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해양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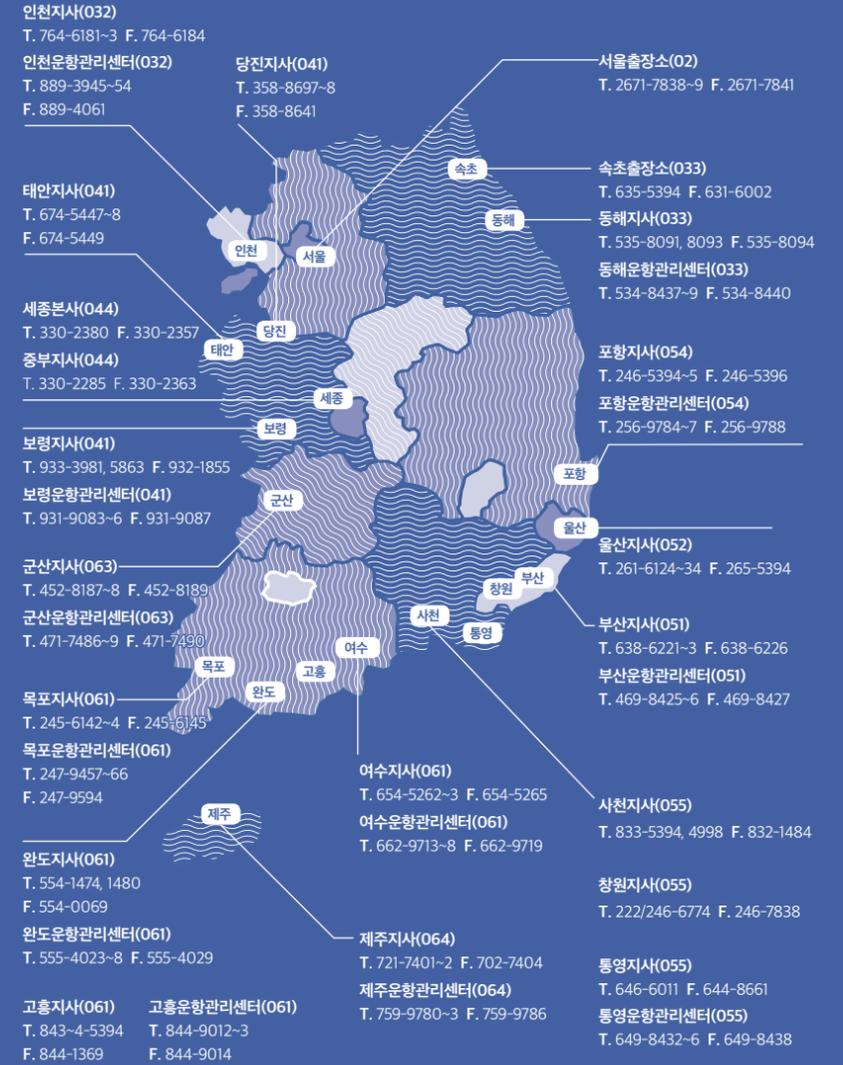
세종 본사 안내

044) 330-이사장	T.2200~1	F.2352
기획조정실	T.2210	F.2353
성과혁신실	T.2410	F.2466
경영본부장	T.2203	F.2352
인재개발실	T.2220	F.2354
운영지원실	T.2230	F.2357
정보보안실	T.2500	F.2355
교통연구본부장	T.2205	F.2352
교통정책실	T.2300	F.2309
해양안전실	T.2340	F.2339
해양환경실	T.2250	F.2365
안전연구실	T.2450	F.2461
검사본부장	T.2204	F.2352
검사관리실	T.2260	F.2358
검사기준실	T.2270	F.2359
운항본부장	T.2206	F.2352
운항정책실	T.2381	F.2379
운항상황센터	T.2670	F.2389
감사실	T.2320	F.2364
노동조합	T.2360	F.2367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고객의 현장 애로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검사제도 관련 불편 사항이나 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검사기준실로 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27(아름동)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실
TEL. 044-330-2270~9
FAX. 044-330-2359
E-mail. it@komsa.or.kr

지사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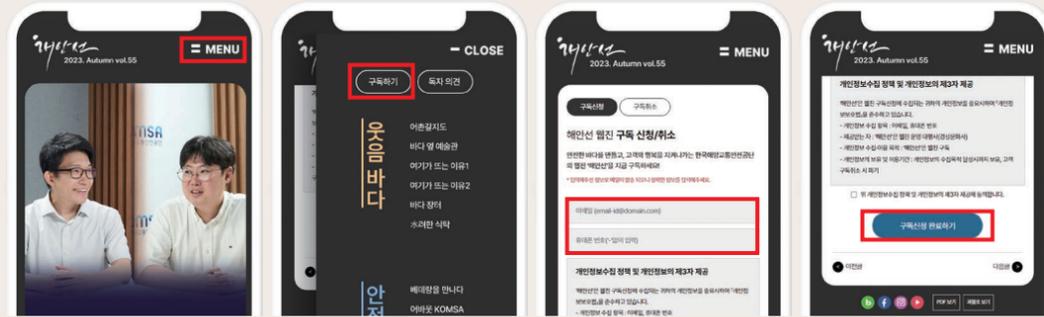
본사로 오시는 길



구독하고 선물 받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해안선>
웹진에 접속하셔서 <해안선>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참여 방법 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웹진을 접속한다. <https://komsa-webzine.co.kr>



- ② 웹진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의 'MENU' 버튼을 누른다.
- ③ 목차 부분의 상단에 있는 '구독하기' 버튼을 누른다.
- ④ 개인 이메일과 연락처를 입력한 후 정보 제공에 동의하기를 누른다.
- ⑤ 구독신청 완료하기 누르면 끝!

참여 기간 2023년 10월 20일(금)까지

당첨 인원 10명(랜덤 추첨)

당첨 선물 GS편의점 상품권(1만 원)

선물 발송 이벤트 마감 후 일주일 내 당첨자 개별 발송(※미당첨자는 별도 공지 없습니다)

<해안선> 보고 독자 의견 남겨주세요!

매호 발행되는 <해안선>을 보고 의견을 남겨주세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더 나은 <해안선>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해서
독자 의견을 남겨주세요.

MTIS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모바일 APP

MTIS 앱 다운받기



QR코드를 스캔하면
MTIS 앱을 무료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